

영암군에선 살아보고 귀농귀촌 결심한다

영암군, 만원하우스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사업 진행 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한 달 살기, 만원하우스, 마더하우스 등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행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부담인 점을 감안, 영암군은 다양한 정책으로 살아보고, 머물고,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먼저, 영암군의 '영암살래? 영암살래!'는 도시민이 영암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이다.

행안부의 '두 지역 살아보기'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군서면 5개 세대 주택에 입주해, 마을주민과 소통하며 농촌의 일상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암살래 주택 입주자들을 위해서 영암군은 마을주민 간담회, 일손 돕기, 텃밭 체험, 지역문화 탐방, 재능 기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는 영암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도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을 설치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다른 지역에서 살며 영암 전입 예정자이어야 하며, 2년간 의무 거주 조건이 적용된다.

'마더하우스'는 베이비부머 세대 귀향



인에게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정착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비 70%, 자부담 30%의 수리비로 부모·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고칠 수 있다.

영암군은 주거문제 해결을 넘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방치 주택을 재생해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암면에 서울시민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영암서울농장'도 인기다.

서울농장은 계절별로 딸기, 무화과 등 수확, 지역 축제 참여 등 2박3일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농촌 이해·관심을 넓히는 도농 교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

울농장을 방문해 농촌 생활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영암군은 귀농정착금 지급,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도시민이 영암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을 결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사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민의 영암과 인연을 정착으로 있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의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귀농귀촌팀(061-470-2556)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함평군 학교면·기관사회단체·소방서, 침수 피해복구 '한뫼'

전남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긴급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함평군은 21일 "학교면과 함평소방서, 기관사회단체 등이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택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9일 학교면을 기준으로 352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학교면 일대 41여 세대가 침수되고 가재도구 유실, 담장 붕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세대 중에는 고령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많아 신속하고 세심한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면은 집중호우 당시 취약지 순찰과 주민 대피, 긴급 물품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선 결과, 단 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초기 대응을 마쳤다.

또한, 즉각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해 지역 내 사회단체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복구 지원에는 학교면 8개 기관사회단체와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나서 ▲ 침수 주택 토사 및 잔해물 제거 ▲오염 물품 반출 ▲주택 내부부 세척 및 방역 ▲분리수거 등 다양한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함평소방서에서는 고압 세척 차량 등 장비를 지원해 현장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

다. 학교면은 피해복구가 100% 완료될 때까지 기관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복구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우석 학교면장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이 한마음으로 나선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며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순천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시민 안전 선제 대응

쓰러진 나무에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미리 조치 적극행정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최근 가로수 전도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 최초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하거나 내부 부패가 진행된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가로수의 체계적 진단과 관리를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으며, 노후 수목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했던 금당지구 일대를 2025년 정비 대상지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식재된 느티나무 968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수목의 형상, 줄기 기울기, 뿌리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함께, TS Meter 전기저항 측정기, 내시경 촬영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도

병행해 진행했다.

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전도 위험이 높은 느티나무 41주가 '조치 권고 수목'으로 판정됐다. 시는 이들 수목에 대해 7월 중으로 제거 또는 외과수술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금당지구 외 다른 지역으로 위험성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완도군, 관광 택시 반값 투어! 여행 경비도 받으세요!

운행 요금 기본 2시간에 5만 원, 이용일 2일 전 예약 필수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 택시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도 관광 택시는 타 지역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와 숨은 명소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택시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관광지 해설과 여행 동선을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완도 관광 택시는 도서 지역이 아닌 체

도권인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대 탑승 인원은 4명이다.

운행 요금은 기본 2시간에 5만 원, 3시간 7만 원, 5시간 10만 원, 8시간 14만 원이고, 관광객은 운행 요금의 50%만 결제하면 된다.

관광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완도 관광택시(☎

2025 완도 방문의 해

완도 관광 택시 반값 이용 꿀팁!

예산 소진 시까지

운행시간	기본요금	관광객 요금	탑승 인원
2시간	5만 원	2만 5천 원	4명
3시간	7만 원	3만 5천 원	4명
5시간	10만 원	5만 원	4명
8시간	14만 원	7만 원	4명

※ 운행 시간: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 예약: 2일 전 예약 필수 (☎ 061-555-8582)

※ 결제: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 차량: 4인승 택시

※ 서비스: 관광지 해설, 여행 동선 안내

☎ 061-555-8582

완도/장선우 기자

장흥군, 폭염 속 농어업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 교육

장흥군은 지난 1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농촌인력중개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농어업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 현장에서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진행

되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 고용주는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

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며, 근로자들과 관계자들이 지역 문화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우수상" 수상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영광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209개 참가업체 444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영예스럽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렸다.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

되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정책과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열려 다양한 관람객이 함께했다.

영광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하며, 귀농귀촌 상담, 정책 안내, 정착 지원사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맞춤형 귀농인 지원, 교육 프로그램, 임시주거 지원,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영광

군의 특화 정책들도 함께 소개했다.

영광군은 실효성 있는 귀농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귀농인이 유입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영광군의 농촌 삶을 소개하고, 인구 유입 확대의 기회를 마련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는 "2025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참가를 통해 영광군이 지닌 농업의 가능성과 귀농 지원 환경을 널리 알렸다"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보다 낫다 사람을 만나도 기쁘게 할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냐

기쁜 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다. 공적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